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목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실찌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4:33-35)

안녕하세요?

코로나의 위협이 겨울을 맞아 다시 드세지고 있습니다. 대만도 12월에 들어서면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주 정도를 계속 비가 내리며 전형적인 대북의 겨울이 되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 까맣게 곰팡이들이 핀 것을 보며, 벌써 새해를 맞이할 대청소를 해야 할 때가 된 것을 깨닫습니다.

감사한 일들



추족의 엠 아이콘

추족(鄒族 Tsou)은 대만 원주민 부족들중 고산족의 하나입니다. 추족 교회들의 요청으로 9월 초에 시작된 추족(鄒族, Tsou)의 오디오 성경 녹음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만 중부의 산 속에서 이루어진 녹음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종종 발생해 녹음이 지연되곤 하였습니다. 거의 완성된 녹음 프로젝트가 12월 안에 잘 마무리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월 초 이번 녹음된 추족의 오디오 성경에 대한 봉헌 예배가 대만 성서공회 주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알버트선교사는 녹음팀과 이 봉헌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완성된 다우족, 아미스족과 추족의 오디오 성경들이 그 소수 민족들의 교회에서 영혼을 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하는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알버트선교사는 지난 11월 대만 위클리프의 이사회와 연례 회원대회를 감당하였고, 12월 셋째 주 월요일에는 연례 감사기도 모임을 주최하였습니다. 대만은 너무나 감사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잘되어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입구에서 성도들의 체온을 체크할 코올로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써야만 하지만 계속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9일에는 성탄행사로 교회에서 바자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도 대만 위클리프 사무실 홍보를 위한 부스와 구강암 초기진단 부스로 바자회에 처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교회의 주차장에서 열린 바자회 중에 찬양팀이 계속해서 찬양을 불렀는데, 대낮에 도심에서 예수의 이름과 성탄을 축하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을 처음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버트선교사는 계속해서 대만 위클리프의 인사와 행정사역외에 교회의 요청에 따른 설교, 각종 선교모임과 기도모임에 대표로 참석하는 등 여러 사무실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계속해서 지역책임자의 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역지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코로나로 여행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게 사역하는 팀들이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르다는 지난 10월부터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함께 하는 학생부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이후로 처음으로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학생부 예배에 중학생인 이삭과 같이 참석하고, 예배 후 여대생들의 소그룹에 참여해 교제하고 있습니다. 예전 밀알 청년부에서는 큰누나였는데 이젠 이모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일

Could you please ask me before you print out or post this letter? Thanks.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목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실찌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4:33-35)

에 아직 언어도 많이 부족하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민감함을 더해 주셔서 은혜롭게 교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마르다는 대만 위클리프의 몸이 불편한 기도담당 동료들 도와 매주 기도편지 작업도 돕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훈련하고 함께 기도팀을 이루어 섬기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치주염 수술 후 잇몸이 계속부어 있는 이유를 찾기 위해 10월에 MRI 찍고 구강 전문의를 만났지만 MRI상 침샘도 막히지 않았고 아무런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직도 부어있고 가끔씩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는 불편한 잇몸을 깨끗히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삭은 기도해 주셔서 이번 학기를 열심히 잘 감당하였습니다. 반 친구들과 같이 단편영상도 만들고 주제별로 프레젠테이션도 준비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선생님들과 반친구들을 주시고, 영어도 더 진보하고 학업에 의미와 동기부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는 5학년 1 학기를 잘 마쳐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좋은 담임선생님과 반 친구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글짓기 대회와 이야기 대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괴외활동으로 참가한 농구도 좋아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학교에서 계속 소독제로 아이들의 책상과 의자를 소독합니다. 모세의 양 손바닥이 약품에 대한 알레르기로 겨울이 되면서 피부가 벗겨지고 갈라지는 증상이 있어 약을 바르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 피부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1. 항상 기도로 깨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2.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고 전해야 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3. 저희 두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과 건강주시길
4. 이삭과 모세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도록
5. 시아버님께 속히 구원을 베푸시기를

대만에도 12월에 8개월만에 처음으로 본토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말 코로나로 위기가 시작될 때, 저는 인터넷으로 마스크 뜨는 것을 배워 뜨개질을 하고 채소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문밖 출입이 통제되고 아이들의 방학도 연기되며 불안이 고조되던 시기에 자신도 인식하지 못했던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그렇게 해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심은 고추 화분에서 빨갭게 익은 고추를 수확하는 기쁨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몇 개 되지 않는 화분에 심은 채소들이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바나나 껍질과 달걀껍질로 만든 비료도 주고, 벌레가 생기면 벌레도 잡아야하고 계속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대처럼 채소들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아



Could you please ask me before you print out or post this letter? Thanks.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목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실찌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4:33-35)

니었습니다. 전문 농부님의 조언을 받은 고추를 제외하곤 다 실패하였습니다. 씨를 뿌릴 수는 있지만 싹이 나오고 자라게 하는 것은 전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단 8:18)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은 다 취소되거나 기약없이 연기되어야 했습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감사하게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역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코로나로 어려운 올해도 주님이 모든 것을 장관하고 계신 것을 믿으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서, 그분의 크신 긍휼로 저희를 돌아 보아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그분께 어려운 일들과 힘든 상황들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밀알 가족들이 건강하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코로나를 속히 물러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해 쉽지 않은 중에도 계속해서 저희를 지원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밀알가족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2020년 12월
알버트, 마르다, 이삭, 모세 올림

Could you please ask me before you print out or post this letter? Thanks.